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뜻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이사야35,4-7L 화답송



(후렴) 내 영혼 아, 주님을 찬양 하 여 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야고보2,1-5

복음환호송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7,31-37

성가 | 입당성가 [480] 예물준비 [211]
영성체 [166] 파견 [285]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송준호 바오로	이기수 베네딕도
송준호 바오로	문홍빈 안셀모
지경임 마리아	이미숙 안나
박요한나	김동욱 안드레아
생미사	봉헌
김택영 알베르토 건강회복	이규완 안토니오
유경자 데레사	익명
김효주 수녀	조미카엘, 데레사
서지선 헬레나 생일축하	익명
조선희 마리아 생일, 축일 축하	남지혜 크리스티나
김지영 마리로사 축일 축하	희망의 모후pr
주일학교 교사들	학부모회
주일학교 학생들	학부모회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9월 8일	김유화	송명근	민재인	민재인	김영숙	한데레사 조바실리오
9월 15일	정유진	강호영	이경자	이경자	김종선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118,865단

▶이우희 소피아 수녀님 오늘 미사중 강론

: 겔럽, 뉴멕시코 원주민 사목(아씨시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척박한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원주민들과 그 가족을 돕고, 자립할수 있도록 아씨시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수녀들이 겔럽 뉴멕시코에서 소임합니다. 8년째 이 소임중인 소피아 수녀님이 원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원주민들이 만든 원주민패턴 **천가방과 도자기, 그림등을 친교실에서 판매**합니다. 원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작은 정성으로 협력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9.3 그레고리오 9.4 모세 9.7 레지나 9.8 성모님축일 9.13 요한크리소스토모 9.16 고르벨리오 9.20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모든 한국성인 9.21 마태오 9.23 테클라, 오상의 비오 9.26 고스마와 다미아노 9.27 빈첸시오 9.29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9.30 예로니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9/15(주일) 9:15, 대성당

오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과 부모, 형제, 친척, 지인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에물 신청: 주일 미사후 친교실

▶성경공부: 시편과 지혜문학

토요일	10am~	9월부터 2,4째주	Fr.김가롤로
-----	-------	------------	---------

▶김효주 수녀님을 위한 영적예물

오는 9월 20일 영명축일을 맞으시는 수녀님을 위해 미사중에 영적예물과 축하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 영적예물: 묵주기도: 개인당()단, 미사:개인당()번
- * 미사후 친교실에서 작성하여 수거함에 넣습니다.

▶성경공부(BIBLE ACADEMY 3학기) 개강

: 사도행전~요한묵시록 ***교재준비로 미리 신청해 주세요~**

매주 목요일	9/5 개강 10am-11:20am	교재구입: 친교실 성물부	Sr.김효주 신청: 347-834-5784
매주 주일반	9/8 개강 12:40pm~		

▶유아세례 신청하세요~

“유아 세례는 신자인 부모가 하느님께 받은 생명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유아 세례는 구원의 은총이 무상으로 주어 진다는 진리를 드러낸다.” 신청: 사무실 347-834-5784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우 한분이 예비신자 한사람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하시길 주시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교리 첫만남: 2024년 10/13(주일),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4월 부활시기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교육관3A 신청: Sr.김효주347.834.5784

▶미동북부 레지오 마리아 봉쇄교육

일시: 2024 9/27(금)5pm~29(일) (2박3일), 300불
 장소: 뉴튼수도원. 동반: Fr.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청: 윤루시아 꾸리아단장 347-633-3767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가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단장: 정다경마리아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매주일11am단장: 이기원 스테파노929-208-5147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9/24(화) 오후 6:30~8:30. 다미안홀

▶미국본당 제3회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 초대합니다**
 9/29(일) 1:30pm~4:pm
 ▶ 안내 및 티켓구입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요즘 하늘이 참 맑습니다.
기분도 하늘처럼 맑으시기를.

당신이 웃으면 가족이 웃고,
이웃이 웃고,
온 세상이 웃습니다.

지금,
하늘만큼 땅만큼 맑은 미소 지어보세요. by 황중환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주님안에 힐링, 청년 여름캠프



8월 23일(금)~ 8월 25(일) Bloomingburg, NY12721

청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렸다.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에서, 서로 마음 여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액티비티들: 양궁, 피클볼, 수영.... 그리고 도란도란 대화, 모닥불, 드라이브중 마니또 맞추고 챙기기, 함께 봉헌하는 미사 등이 어우러져, 자연속에서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청년회장 진현중 스테파노는 “청년 캠프 진행을 위해 물적, 영적 지원을 해주신 교우분들과 신부님, 수녀님 덕분에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청년회 부회장 남지혜 크리스티나는 “캠프를 직접 기획하며, 청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눌수 있어 감사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느님께서 채워주시어 캠프를 주관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이 캠프를 준비하고 열성으로 이끌어준 청년분과, 청년 회장단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교회의 청년들이 신앙의 빛으로
하느님의 선한 역사를 세상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응원합니다.